울림과 잠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제 27 호 2022 년 3 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II. 묵상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복음 읽기
† 말씀에 머물기
† 말씀의 울림
† 말씀에 잠김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V. 소공동체 기도문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 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3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말씀의 울림

- 5 절: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By no means! But I tell you, if you do not repent, you will all perish as they did!”)

  진정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회개가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봅시다.

- 6 절: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There once was a person who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orchard.”)

  우리 마음에도 하느님을 위해 심어 놓은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은 무화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8 절: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I shall cultivate the ground around it and fertilize it.”)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끌어모아 짊어지시고 이것들을 끝장내시겠다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다고, 너희는 이런 더러운 죄악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애절한 사랑으로 당신의 심장에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새삼 예수님의 자비가 마음에 차올라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포도나무가 즐비하게 서 있는 포도밭에 심어진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 존재가 뿌리내릴 곳을 몰라 방황하던 무화과나무를, 그런 나를 포도밭에 심어주셨습니다. 안심되고 처음으로 맛본 내 집, 내 자리라는 편안함에 잠겼습니다. 철철이 열매를 내는 포도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습니다.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 아팠잖아. 나도 나름의 노력하고 있어.’ 하며 자기합리화로 방어벽을 쌓았습니다. 한편으로 쭉정이 포도를 보면서, ‘거봐, 너도 별수 없잖아.’ 하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통에 나는 내가 만든 성에 고집쟁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곁가지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쓸모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만 내세우고 ‘나’만 주장하다가 나를 심어준 주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나무를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주인을 재배인이 막아섭니다. 자신이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무 둘레를 파는데 쌓아 놓은 돌들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재배인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노력과 정성을 들여 하나하나 그 돌들을 치웁니다. 돌에 발이 베이면서도, 발을 찧이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치웁니다. 깨끗하게 잘 파진 둘레에 거름을 부어 넣습니다. 그저, ‘너 잘 커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잘 살아라.’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이 자비가 오늘 저의 발길을 하느님 아버지께 돌려 아버지 마음에 드는 무화과나무가 되고 싶게 합니다. ‘아버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재배인의 손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받은 이 사랑, 저도 아버지처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5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말씀의 울림

- 20 절: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So he got up and went back to his father.")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서로 나눠 봅시다. 아울러 이번 사순절에 내 고집과 집착에 가려 하느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31 절: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My son, you are here with me always; everything I have is yours.")

  하느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심을 잊고 남과의 비교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지 못한 체험을 나눠 봅시다.

나눔 메모

말씀에 잠김

1-2 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

(『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drawing near to listen to him, but the Pharisees and scribes began to complain, saying,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세리나 죄인들에게 가까울까 아니면 바리사이나 율법 학자들과 더 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바리사이나 율법 학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나 일상생활에서도 수없이 속으로 '어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라든가, 속으로 비평과 비난을 퍼부을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온유한 척했어도 안으로는 수 없는 판단과 질책의 풍랑 속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차라리 오늘의 잠김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바로 살려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모여 앉았더라면 훨씬 더 순수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옳게 살고 있고 그래서 참 신앙인이라는 우월감 넘친 착각 속에 있을 때 곧바로 저는 유혹과 교만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설혹 주위에 비난 감의 대상이 보일 때 차라리 눈을 감고 성경에서 펼치신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실 때 뛰어나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닌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음식도 나누셨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앓는 이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나약하며 자신들의 병이나 죄에 얽매여 스스로 해방되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하시어 그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 주시며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며 모여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따르는 순수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느님은 잘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보다는 죄인들의 회개로 복음의 힘을 더욱 전파하시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며 제가 선하고 충실한 종이라 생각하여 항상 심판과 판단의 유혹에 빠지기보다 생각을 바꿔 제가 세리나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주님은 찬미 찬송 받으옵소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요셉 성인에 대한 묵상

우승수 젤마노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의 요셉 성인을 묵상해봅니다. 성경에는 아주 무심한 듯 간결하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루카 2, 6-7)

해산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쉼터와 더운물, 노련한 산파를 모셔다 주기는커녕, 차가운 길바닥을 전전해야 했던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삭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늠할 수 없는 통증에 신음하는 아내를 데리고 여기저기 쉼터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길을 떠나 낯선 곳에서 맞는 응급 상황임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대놓고 방을 내주길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정을 알면서도 자기 방을 내주기를 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과 무기력감,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 대한 미안함...

그렇지만 그의 기도를 하느님은 들어주십니다.

겨우 찾은 곳이라곤 말과 소가 뒹구는 더러운 마구간과 냄새나는 구유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젖은 지푸라기라도 모아 만삭으로 몸이 무거운 마리아의 허리 밑에 깔아주는 것 외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절한 기도뿐이었겠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한심한 가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낮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도 무능한 가장임에 틀림없었지만, 하느님은 그런 약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느님께서 역사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기를 원하고, 잘되면 기뻐하고 못되면 좌절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 의탁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내세워야 하느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요셉 성인처럼 가난한 마음인가. 문 열기를 거부하는 여관 주인의 마음인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투숙객의 마음인가. 성 요셉 성월을 맞아 그리고 사순 시기를 맞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동네방네 이야기

- **(NV2)**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반원들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안부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 **(NV3)** 생명의 말씀으로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를 정했습니다. 실천사항은 “가톨릭 굿뉴스” 앱을 다운받아서, “매일미사”의 복음을 매일 읽기로 했습니다.
- **(TR3)** 이번 한 달간 반원들끼리 만나면,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 **(TR4)** 반원들 모두가 온 품을 열어 새 신자 황원용 라파엘 & 최은정 이사벨 가정과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신 김성민 필립보 & 조은아 엘리사벳 가정을 환영합니다.
- **(RC1)** 반 모임 중에 ‘자기 성찰하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 **(RC2)**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께 청하며 기도드리기로 했습니다.
- **(RC4)** 생명의 말씀으로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실천사항

1. 부활전 판공 성사를 통해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과 평화의 친교 나누기
2. 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순 기간 십자가의 길 참여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standrewkimdet@gmail.com